

사원끼리의 여행을 즐긴다

■ 「탈·음주여행」이 키워드(Key Word)

직장의 레크레이션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직원단체여행이다.

일찍이 직원단체여행이라고 하면 먹고 마시는 여행의 대명사처럼 알고 있다. 버스를 빌리고, 뒷좌석에 올라타서, 일단 출발전부터 캔맥주 등을 마시며 ‘오늘은 해방이다’라는 등 점점 흥이 돋구어지고, 1시간쯤 지나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몇군데의 관광코스를 돌다가 버스는 온천장 등의 관광지에 도착하여 숙소에 다다른다. 숙소에 들어가서 각자 간단히 짐을 풀 후 이곳에서도 곧바로

음주로 접어드는 여행풍속.

온천장이나 숙소에서의 저녁은 바로 술이 함께 하는 회식자리로 이어지고, 이래저래 취기가 오르고, 노래를 열창하기도 하며 기세가 그칠 줄을 모르게 된다. 게다가 저녁의 연회가 끝나면 젊은 사원들은 다시 유흥을 찾아 나서게 되고 새벽쯤에나 돌아와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게 보통. 이렇게 되면 다음날의 버스속 장면은 고요 속에 묻히고, 관광명소에 도착해도 구경보다는 잠에 푹아 떨어지기 일수다. 이러한 직원단체여행을 하는 기업이 아직까지 적잖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먹고 마시는 여행은 점차 여성사원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요즘은 술도 술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갖가지 재미거리를 찾는다. 예를 들면 자연 속에서 캠프를 즐기는 야외캠프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테니스나 골프여행 등의 테마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직원단체여행도 「탈·음주여행」이 요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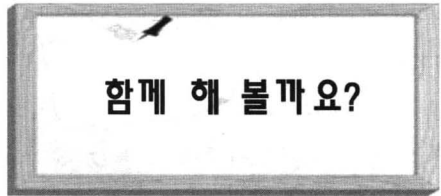
■ 직원단체여행은 사내 레포트·이벤트의 찬스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해방이다」라고 신명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행은 일상생활을 떠나서 누구나가 신바람이 나서 들뜬 기분이 되게끔 한다. 레저활동 중에서도 항상 1위를 차지하는 활동이며, 최근에는 해외여행까지도 붐을 이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행의 매력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강세를 보인다. 가보지 못한 장소와 풍경들, 맛있는 음식, 아무튼 사내 레포츠·이벤트로써 사원 단체여행은 으뜸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야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웨일리캠프, 토속물이나 토속음식을 찾는 여행, 지적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비화(歷史秘話)발견여행 등 최근에는 테마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요점은 관광지로 가서 먹고 마시는 일로만 시간을 보내는 사원단체여행은 어찌다 몇년만에 한번정도 해볼만한 여행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매력을 잃어 갈 것이다. 그 여행에 참가하여 정말 즐거웠다는 흡족감을 줄 수 있는 단체여행이 되지 못한다면 행사를 갖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 운동회를 이용한 재미있는 게임 -

사내 운동회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새로운 종목의 게임들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 공포의 고무공

바구니에 공넣기의 변형판. 공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가지 등을 고무줄을 이용하여 기둥위에 매달아 놓고 무게가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가도록 만들고, 그 속에 고



무공이 들어가면 그 무게로 점차 내려가게 한다.


바가지의 밑에는 뽀족한 침을 붙이고 그 아래에는 물 또는 파우더를 넣은 풍선을 달아 놓는다. 공을 빨리 넣어 무게가 무거워져 풍선을 일찍 터뜨리는 팀이 승리. 풍선을 받치는 사람은 상대팀 선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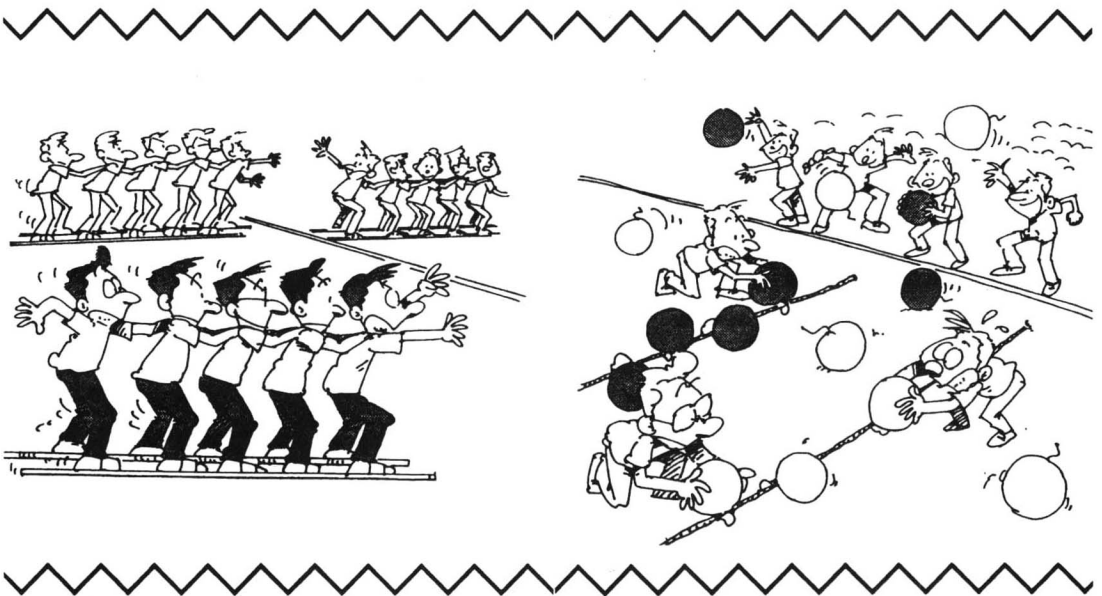
■ 연결! 지네 게임

한팀이 20명. 5인1조로 하여 4조가 모두 지네발판(5명이 한줄로 나란히 신을 수 있도록 만든 긴 장대신발)을 신고, 연결점마다 각 조가 대기한다. 연결점은 3개소. 각 팀이 1조가 연결점을 향해 출발하고 다음 연결조

와 연결한 후, 또 다음 연결점을 향해 가서 연결조와 연결해 간다. 연결점마다 연결하여 차례차례로 연결을 늘리고 마지막에는 20명의 큰 지네가 되어 골-인.

■ 수박따기 대작전

관객과 일체가 되어 즐기는 종목. 미리 관객석에는 수십 개의 색이 다른 풍선 또는 비치볼을 놓아 둔다. 각 팀의 색을 정해두고, 출발과 동시에 관객은 볼을 운동장으로 던져 넣는다. 각 팀의 선수는 자신들의 색깔의 볼을 모아서 한가닥 줄에 이어간다. 어떤 팀이 빨리 정해진 수의 볼을 이어서 끝내는가 하는 게임. 



〈勞動衛生에서〉